

가뭄 심한데 동파까지...“버려지는 물 어떡하나”

최악 가뭄 속 최강 한파 이중
수도관 동파 수리 현장 가보니

광주 이번 겨울 피해 접수 잇따라
설명절 피해 늘어 수리 의뢰 빗발
예약 밀려 제때 수리도 어려워
오래된 배관 팽창하며 파손도
서민들 수리비용 부담 ‘한숨만’



광주시광산구 한 공장 옥상의 물탱크 수도관이 지난 24일 동파됐다. 쏟아져 나온 물은 한파 때문에 땅에 얼어붙었다. <민간 수도관 정비업체 제공>



강한 한파로 광주지역에서 동파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관 정비업체 직원이 26일 광주시 북구 각 화동 한 아파트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수리하고 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설 명절 집을 비운데다 한파까지 겹쳐 동파 수리 의뢰가 빗발치는데, 가뭄에 동파로 버려지는 물이 너무 아깝네요”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에서는 공사현장을 방불케하는 드립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최정혜(여·45)씨 집에서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하기 위해 배란다 벽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씨는 동파를 확인한 지난 25일 곧장 수도관 출장 수리 업체에 전화했지만 예약이 밀려있어 하루 뒤에나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른 업체에도 전화해봤지만 다들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하루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전날 세탁기를 돌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심장이 철렁했다”며 설 명절에 정전인 해남을 4일간 다녀오면서 집을 비운 사이 보일러 급수 배관이 얼어붙어 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날 수도관 정비에 나선 김동일(54)씨는 수도관을 물수건으로 덮은 뒤 뜨거운 스팀을 연신 뿌려댔다. 30분 가까이 지나 배관 외부를 타고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김씨는 “아이고” 탄식을 질렀다. 수도관이 파손됐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도관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했는데, 오래된 배관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깨진 것”이라며 “파손된 부분을 찾으려면 드릴로 배란다 벽 일부를 허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 시간을 더 들여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수리비도 30만~

100만원 추가를 청구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결국 약 400㎝ 너비의 배란다 벽을 부수고 나서야 파손된 배관 위치를 찾아냈다. 배관은 마치 풍선에 구멍이 난 듯 기이하게 팽창한 채 5㎝가량 찢어져 있었다. 파손된 배관을 잘라낸 뒤 열전도율이 낮고 동파에 강한 PVC배관으로 교체한 뒤에야 4시간여에 걸친 사투가 끝났다.

최씨네처럼 설 연휴에 몰아친 ‘최강 한파’에 광주지역에서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동파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도관이 터지며 손실되는 물도 상당해 최악의 가뭄에 유실되는 물도 많은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수도관 동파 피해는 25일까지 총 72건 접수됐으며, 이중 설 연휴기간에만 40%(29건)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집계한 것과 달리 실제 수도관 동파 피해사례는 훨씬 많다는 것이 주민들과 민간 수도 정비업체들의 이야기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수도관과 연결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만 파악하고 수리하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지 않는 개인의 집이나 사업장의 수도관은 민간 수도관 정비업체에 직접 수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실제 광주지역 수도관 정비업체 측은 설 연휴 이후 동파로 인한 수리 요청이 두 배로 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수도관 정비업체 직원은 명절 전에는 하루 평균 1건 수준으로 수리 요청이 들어왔으나, 명절 이후에는 하루에 3~4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해빙작업이후 동파된 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2건 밖에 수리를 할 수 없지만, 하루에도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는 수십 통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업체측은 “기다려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비업체 직원들은 배관이 대부분 배란다에 있어 한파에 취약한데, 명절에 장기간 집을 비운데다 한파까지 더해져 동파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

다. 또 광주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동파에 취약한 집이 많다고 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값이 싼 동(銅) 재질 배관을 많이 쓰는데, 동 배관은 열전도율이 높아 동파에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유례 없는 가뭄에 동파가 이어지면서 가뭄 해소가 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수리에 나선 김씨도 지난 24일 한 공장의 옥상 물탱크 배관이 동파되면서 물탱크의 물이 그대로 쏟아져 전부 얼어붙은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물탱크 배관을 수리하면서 버려진 물이 수백 l는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수도관 정비업체 관계자는 “가뭄이라고 하지만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될 시 흘러는 물이 더 많고, 수도세보다 배관 동파시 들어가는 수리비가 더 비싸다”며 “동파를 막으려면 외출할 때 물을 조금씩이라도 틀어놓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노인 환자 추락사

병원 배란다 문 안 잠근 직원 유죄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노인환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 실족사 한데 대해 문을 잠그지 않은 직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52)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병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호사 B(56)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오후 8시 20분께 곡성의 노인전문병원에서 병원 배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이 병원 환자 C(74)씨가 배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중증 치매 노인과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 사고 당시 이 병동은 코로나19 격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치매와 거동 불편 노인 환자가 많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배란다 문을 잠궤야 함에도 청소를 담당하던 A씨는 배란다로 쓰레기를 모으 후 사고 당일 저녁 두 차례 잠그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일으켰지만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부정보로 여수 경도 차명 투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감형

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맡은 전남개발공사 간부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취득한 관련 부동산은 몰수했다.

A씨는 공무원이 된 비밀을 이용해 2015년 7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이주자 택지 2곳을 총 7900여 만원을 들여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주자 택지 보상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택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 곳의 택지를 시세(각 2400여만원)에 1000여만원과 1600여만원의 웃돈을 얹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조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공정성·정령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일부는 공무원 비밀로 볼 수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이미 몰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사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 구성

서민 울리는 사기 집중 수사

광주지역 경찰과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도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수사·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협의체에는 전남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전세사기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신저 앱으로 마약 구매·투약 13명 적발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13명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남부경찰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에서 90만원 상당의 필로폰 1.5g을 보안성이 강한 외국계 채팅 앱을 통해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2명도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3명 모두 20대에서 30대 사이로 주부, 자영업자, 유흥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명은 광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 ‘경영난’ 등 때문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국계 채팅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고, 입금 후 유통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장소를 알려주면 가져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유통책의 계좌정보를 확보하고 추적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에 흩어진 구매자와 투약자를 붙잡았다. /민천기 기자 hyunki@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흥적합)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금매 - 6억 8천

(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평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서동 (주택)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